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무허가 이민자들을 그들의 이민 신분을 신고하겠다는 위협에서 보호하는 입법에 서명

입법안(S.343-A/A.3412-A), 타인의 이민 신분을 신고하겠다는 위협하는 개인에 대하여 착취 또는 강압의 법적 기준 적용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개인의 이민 신분을 신고하겠다는 특정한 위협을 뉴욕주 법률 하에서 착취 또는 강압으로 분류하는 입법(S.343-A/A.3412-A)에 서명하였습니다. 개인의 이민 신분을 신고하겠다는 위협은 노동 및 성 인신매매 사건의 경우 현재 범죄로 취급될 수 있지만, 잠재적인 착취 또는 강압 범죄로는 이전에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수대에에 걸쳐 이민자들의 근면과 투지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입법은 그들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강압을 행사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뉴욕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며, 악덕 위협과 협박에서 우리 주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 또는 성 인신매매와 무관한 경우에도 강제 송환시키겠다는 협박으로 개인을 갈취하려는 시도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사한 법규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릴랜드, 버지니아에서 제정되었으며, 이 법안은 "이민자 착취 방지 법(Prevent Extortion of Immigrants Act)"이라는 표제로 공공 리더십 연구소(The Public Leadership Institute)가 제안한 예제 법안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Anna M. Kaplan 상원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국에서 위협을 피해 탈출한 무허가 이민자들에게, ICE에 신고 당하는 것은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지만,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떤 식으로 착취하기 위하여 이민 신분을 드러나게 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더욱 취약한 이웃을 서슴없이 이용합니다. 한참 전에 나왔어야 하는 이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저희는 뉴욕의 이민자 주민들이 그러한 악성 위협에 취약하게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착취 및 강압에 대한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 파트너십을 발휘한 Solages 의원,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Hochul 주지사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Michelle C. Solag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무허가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중요한 개혁안을 입법화하도록 서명한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은 무허가 뉴욕 주민들이 착취와 강압에서 보호해줄 것입니다. 강제 송환에 대한 독단적인 위협은 자기 식구를 부양하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노력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대단히 유해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언제나 그들 편에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